

# The High Cost of Fear

## 공포의 값비싼 대가

한국 탈원전 정책의 원인과  
초래하게 될 경제적, 환경적 영향의 이해



Michael Shellenberger, Mark Nelson, Madi Czerwinski,  
Michael Light, John Lindberg, and Minshu Deng 저

Augus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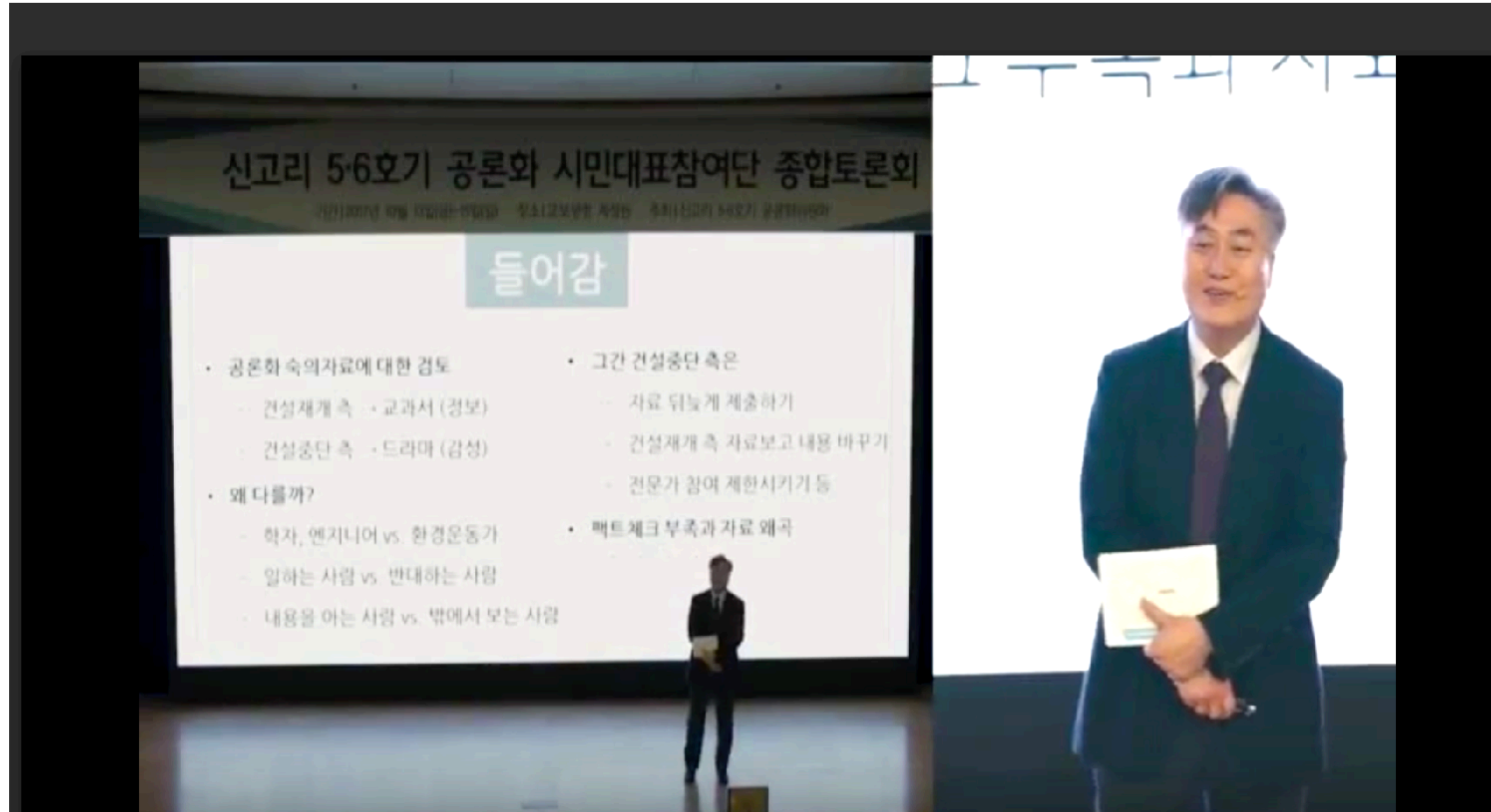
5일 마이클 셸렌베거(오른쪽) '환경 진보' (대표가 본부구에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찾아 미국 내 전문가 그룹 30명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지배층 시무르에게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원자력발전을 하는 원전 선진국"이라며 새 정부의 원전 재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아진다." 자시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넷플릭스(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재난을 다룬 한국 영화 '관도라'를 보고 깜짝 놀랐다.(이 영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관람했다.) 원자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영화다. 한국의 새 정부는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원전을 대체하겠다는데 나라의 범용이 걸린 에너지를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원전은 악(惡)'이라는 프레임과 간담을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에서 머문 시간만 20여 명을 인터뷰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에 원전 재조정을 재고하도록 뛰었다. 에너지는 백년대계다. 시간을 두고 면밀한 계류는 세워 접근해야 한다." 김은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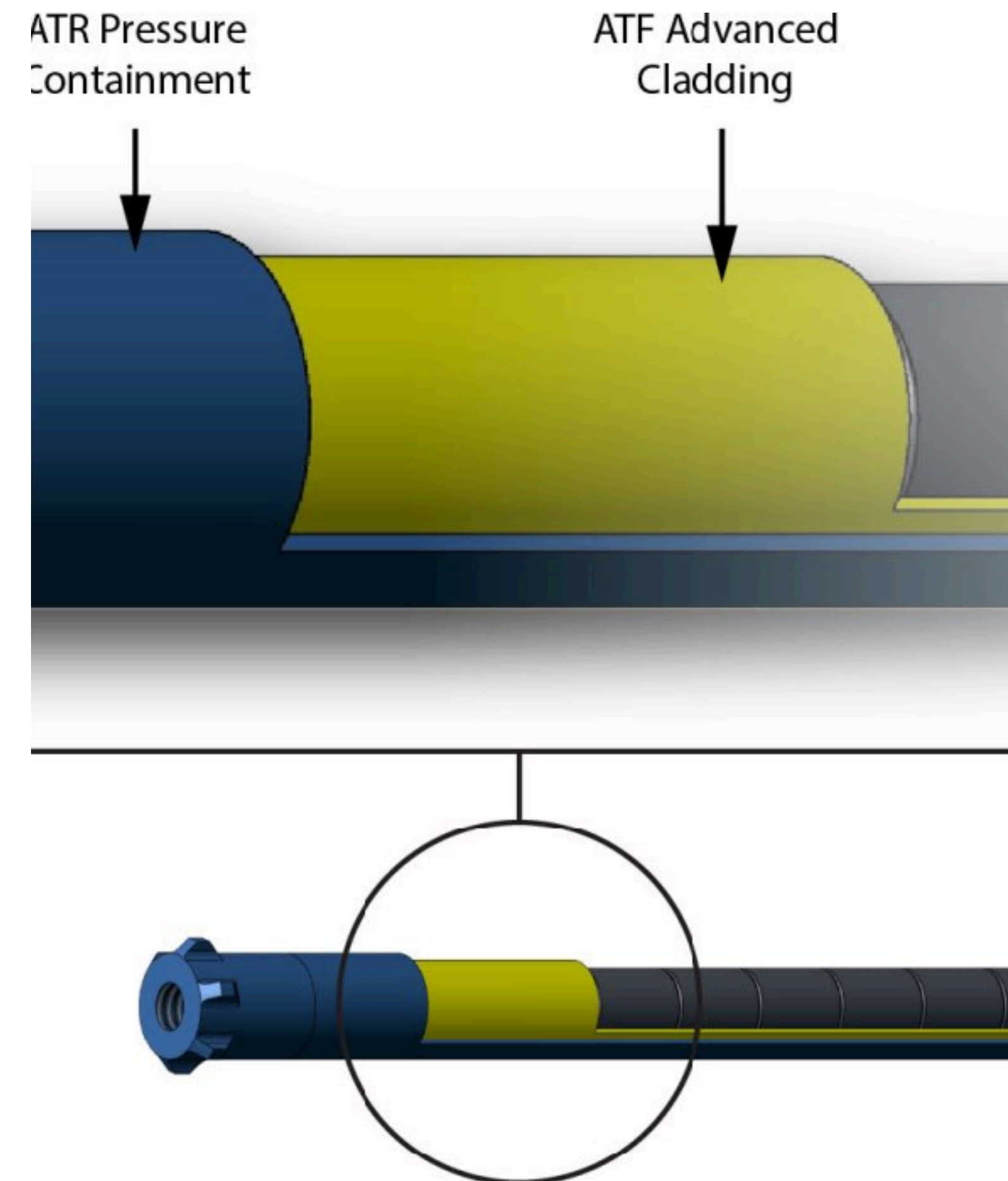
마이클 셸렌베거 환경운동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싱크탱크 활동을 했고, 재생 에너지로는 충분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韓国のチャン・ブンジン教授は、韓国の市民参与団を説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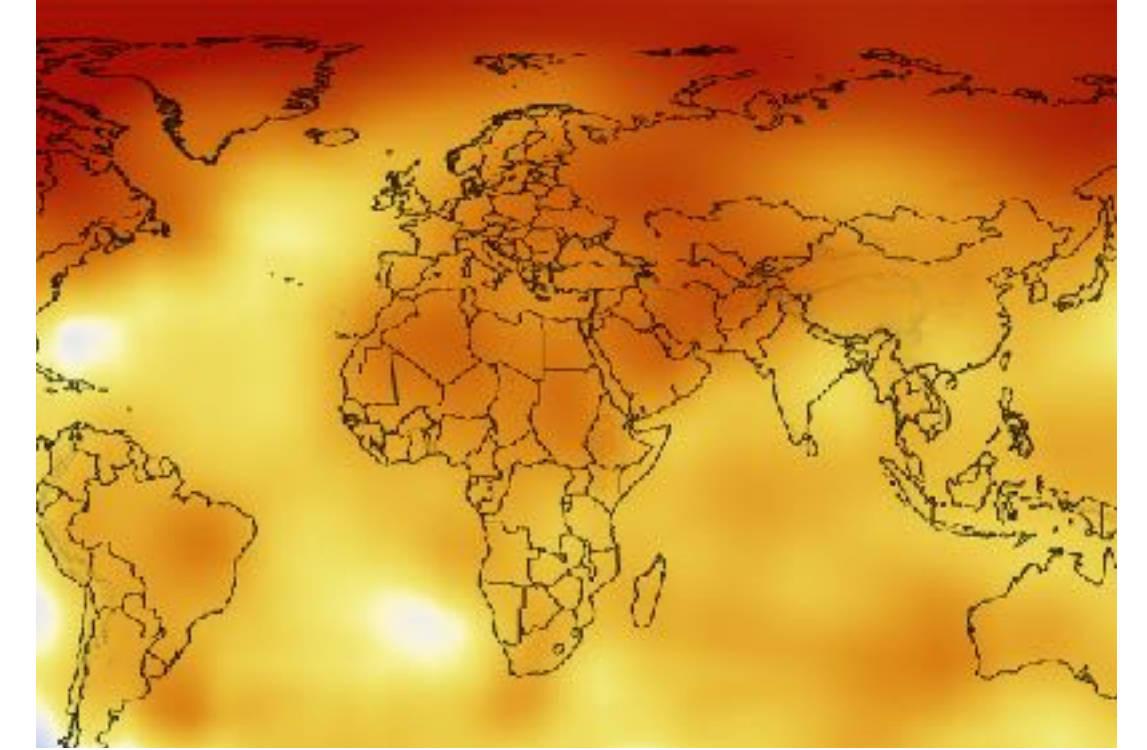


# 事故耐性燃料

- 冷却材喪失後も、～8時間程度メルトダウンを遅らせることが可能
- 水素爆発回避が可能となる
- 現在の第2世代原子炉（軽水炉等）は、第4世代原子炉並みに
- 運転維持費は15%～30%低減
- 米国では今秋・来春に2つの原子炉に装填
- 2020年半ばには米国の全ての原子炉に装填



# 極めて倫理的な手法



原発だけが、  
環境保護に貢献しつつ、  
全人類を貧困から脱却させる。  
世界平和をもたらしながら。